

‘홍경래’와 ‘항우’의 문학적 형상화에 관한 비교연구

정영문*

|| 차례 ||

1. 서론
2. 장사와 이념의 거세
3. 역할전도와 영웅화과정
4. 죽음과 문학적 재생
5. 결론

【국문초록】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가 18세기 이후 활발하게 나타났고 있다. 이는 민란과 당쟁 등의 사회적 혼란이 원인이 되어 조선 사회가 변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존의 사회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가 자리하지 못하는 혼란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역사의 주제로 등장한 민중들이 자신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새로운 영웅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영웅으로 제시되는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 관련고사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역사의 승리자이거나, 후대의 추앙을 받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에 생존당시에는 강한 힘을 발휘하였지만 결국에는 패배한 인물들도 문학으로 형상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대표할만한 인물로 ‘홍경래’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홍경래’가 문학에서 형상화해 가는 양상을 ‘항우’와 비교해 보았다.

홍경래는 세상에 대한 열망으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고, 이런 시도가 반체제적이었기에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도전은 그가 살았던 시대와 평안도에

* 숭실대 국어국문학과 겸임교수

서 한양에 이르는 공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신미민란도 유학적 세계질서를 붕괴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기에 실패하였고, 민란을 이끌었던 홍경래만 문학으로 형상화될 수 있었다. 이때 홍경래는 유학적 가치가 배제된 상태에서 ‘장사’의 이미지만 덧입고 등장하고 있다. 이는 항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항우와 홍경래는 ‘장사’의 이미지로 남았기에 비록 다양한 장르에서 소재적인 측면이나 전기형태로 구성되었지만, 그 대부분은 ‘슬픔’, ‘이별’, ‘죽음’ 등의 부정적인 감성과 결합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웅이 주는 ‘숭고’함보다는 ‘비장’함이 강조되었다. 이미지가 고정된 항우와는 달리, 홍경래는 유교적 질서가 붕괴된 근대이후에 들어와서 ‘민중영웅’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주제어 : 홍경래, 신미민란, 장사, 항우, 비장미.

1. 서론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는 詠史詩, 實記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서술은 전란의 후유증을 극복하는 과정에 빈번하게 등장하였으며, 18세기 이후에도 이러한 서술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이는 민란과 당쟁 등의 사회적 혼란이 원인이 되어 조선 사회가 변혁을 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사회이념은 약화되고 새로운 이념이 자리를 잡지 못함으로 인해 민중들의 삶은 팍팍해져 갔다. 이러한 혼란기를 극복하기 위해 역사주체로 등장한 민중들은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영웅상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가 문학작품에서도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성리학적 가치관이 확고한 시기에는 영웅이 사대부 계층에서 출현하였지만, 기존의 질서체계가 붕괴하고 새로운 가치관이 부각되는 이 시기에는 피지배층에서도 영웅이 등장할 수 있었다.

18세기 이후에도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관련 고사의 문학적 형상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형상화가 “현실적 삶의 감정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동원된 일종의 은유”¹⁾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문학 등에 등장하

는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 관련고사의 대부분은 적어도 한 시대를 대표할 만한 인물들과 관련되어 있었고, 이들의 대부분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역사의 승리자이거나, 후대의 추앙을 받는 영웅들이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승리자인 기존의 영웅들과는 달리 강한 힘을 지니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패배한 인물들도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물들이 문학으로 창작되는 과정에 영웅으로 좌정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현실에서는 비록 패배하였지만, 세상과 싸워 나가는 과정이 독자들에게 공감을 일으켜 역사 주체로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상을 대변할만한 인물로 ‘홍경래’²⁾와 ‘항우’를 들 수 있다.

홍경래와 항우라는 두 인물은 성장배경과 이념이 완전히 다른 상태로 역사에 등장하였지만,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하여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 하였다. 패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문학, 공연 등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처럼 차이점과 공통점이 명확한 만큼 양자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들과 관련된 모티프를 수용해온 요인을 살펴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고사에 대한 연구는 소재론적 차원의 기반연구³⁾에서부터 문화 역사적 창작 동인으로서 소설의 영향과 장르 혼효양상에 주목한 논의⁴⁾까지 폭넓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역사의 실패자로 비극적인 운

1) 김학성, 「시조의 시학적 기반에 관한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6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1, pp.417-418.

2) 홍경래는 1811년(순조11)~1812년(순조12)간에 일어난 신미년의 민란을 이끈 인물이다.

3) 최동원, 「고시조에서 본 중국인물」, 『고시조론』, 삼영사, 1980.

4) 박노준, 「김수장 시조의 장르 혼효현상과 유략적 취향」, 『한국학연구』 5집,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1993.

김용찬, 「조선후기 시조에 나타난 소설수용의 양상」, 『어문논집』 32집, 고려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993.

명을 맞이한 두 인물의 공통성과 차이점에 주목한 연구는 없었으므로 홍경래가 문학으로 형상화해 가는 양상을 항우의 경우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그들의 삶을 ‘장사와 이념의 거세’, ‘역할전도와 영웅화과정’, ‘죽음과 문학적 재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홍경래는 19세기 실존인물로 근대까지 ‘반역자’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문학의 대상으로서 형상화하는 시기가 길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에서 그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홍경래는 1910년을 전후하여 1930년대까지의 문학사적 전환기⁵⁾에 소재로 등장하여 현재 다양한 형식으로 형상화되어 전하고 있다.⁶⁾ 비슷한 시기에 ‘항우’를 모티프로 하는 『초한연의』 등의 활자본 소설도 등장⁷⁾하고 있다. 홍경래와 같은 반역자를 문학으로 형상화한 것은 혼란한 시대를 극복하고자 하는 민중의식이 반영된 결과이며, 독자층이 변화⁸⁾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반면에 항우는 비록 중국

5) 우리 문학사에서 1910년대는 중세문학에서 근대문학으로의 이행기에 해당하는 바, 1920년대에는 이미 근대문학으로의 전환과 성장, 발전이 있었고, 1930년대에는 근대 문학이 본격적으로 확립되던 시기였다.

6) 민요 <타박네>, 설화 <홍경래의 난과 김삿갓>, <기생 연홍이야기>, 일기와 공초류 『진중일기』, 『안릉일기』, 『서정일기』, 『순무영등록』, 『관서신미록』, 『순절록』, 『관서평난록』, 가사류 『정주가』, 『정주승전곡』, 『정주승전가』, 소설류 『신미록』, 『홍경래실기』, 『홍경래전』 등으로 다양하다. (권혁래, 조선 후기 역사소설의 성격, 박이정, 2000, p.37)

7) 초한고사를 소재로 한 소설류는 36종이나 되는데, 『朝鮮王朝實錄』, 許筠의 『惺所覆謁稿』 등을 살펴보면 항우와 관련되는 『西漢演義』는 16세기 중·후기, 늦어도 17세기 초에는 조선에 전래되었고, 17세기 중후반에는 이미 문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8) 김현양, 『1910년대 활자본 고소설의 존재양상과 그 특성』, 『애산학보』 28, 애산학회, 2003, pp.157-180.

이 시기에 항우와 관련된 소설은 주로 『西漢演義』에서 가장 흥미가 있는 사건이나 인물을 소재로 하거나, 인물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한 것이다. 『장자방실기』, 『항장무』, 『초패왕』 등이 그러한데, 이 외에 초나라의 한나라의 수십 차례 격돌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사건인 『홍문연』으로 이야기를 엮은 것이 있다. 『홍경래전』이 발표되는 1920년대에는 민중사적 시각에서 기술한 홍명희의 『林巨正傳』(1928)이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하였다.

인이지만, 다양한 장르에서 그의 인물됨이나 행적을 소재로 삼았다. 그 중에서 가장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은 시조라 할 수 있다. 『한국시조대사전』⁹⁾에 수록된 시조 중에서 楚漢의 역사를 모티프로 한 것이 79수¹⁰⁾, 항우를 모티프로 한 것이 39수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다. 그러므로 이들 작품을 살펴보면, 성장배경이나 대상 인물을 형상화하는 양상이 잘 드러날 것이라 생각한다.

2. 장사와 이념의 거세

홍경래와 항우는 ‘몰락양반 또는 평민’, ‘귀족’으로 성장배경이 달랐지만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였던 인물들이다. 그들은 해체되어가는 기존사회(秦과 朝鮮)를 변혁하려고 하였다. 비록 이들이 시대를 변혁하고자 하는 방향은 달랐지만, 기존의 지배질서를 부정하고, 자기 나름의 지배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의지는 동일하였다. 이러하였기에 이들은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들을 결집할 수 있었다. 홍경래가 ‘평서대원수’를 자칭하고 봉기할 수 있었던 것도, 항우가 ‘초패왕’이 된 것도 그 나름의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집을 가능하게 한 것은 그들이 단순히 힘만 강한 力士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이념을 지닌 壯士였기 때문이다.

홍경래는 출신이 밝혀져 있지 않아서 현재까지 ‘평민’, ‘몰락양반’ 등으로 다양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신미민란이 끝난 지 한 세기가 지나도록 그의 신분이 밝혀지지 않아서 『홍경래실기』에서는 “평안북도 룡강싸에 한

9) 박을수, 『한국시조대사전』, 아세아문화사, 1992.

10) 이형대, 『楚漢古事 소재 시조의 창작 동인과 시적인식』, 『한국시가연구』 3집, 한국시가학회, 1998, pp.384-386.

사람이 낫스니 성은홍이오 일흠은 경리라”¹¹⁾하였고, 『홍경래전』에서도 “정묘 경자년간에 평안도 용강군민에 홍 아무개라는 이가 있었다. 아들을 낳아 ‘경래’라 하였는데, 그 윗대는 상고할 길이 없다”¹²⁾라는 하였다. 그가 어떠한 신분이든 봉기를 가능하게 하였던 지지층은 민중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항우는 항량의 세력을 이어받아 초패왕으로 성장한 인물이다. 귀족의 신분을 지니고 있었고, 여러 지역에 군왕을 임명하였다는 점에서 그가 전제 왕권이 아닌 지방분권의 국가를 완성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두 인물은 이런 성장배경의 차이로 인해 이들이 역사주체로서 이끌어 나갔던 역사 전개와 방향은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상황을 장악하고 비범한 능력으로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인물을 ‘영웅’¹³⁾이라 할 때, 이들은 격변기를 선도했던 영웅이라 할 수 있다.

홍경래가 처음에 구축했던 지지 세력은 송림전투이후 약화되었고, 그들을 대신한 세력은 관군을 피해 정주성에 모인 농민들이었다. 관군에 의해 삶의 터전을 파괴당해버린 농민을 중심으로 봉기군이 재편되면서 정주성에서 장기간 농성할 수 있었다. 이때 홍경래가 제시한 것은 “조정의 간당을 소멸하고 도탄에든 백성을 건지리라”¹⁴⁾는 것이다. 백성을 구제한다는 대의명분이 당시 봉기군의 이념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홍경래와 그의 동료들이 기초적인 교양만을 습득한 인물이었을지라도 조선에서 자신과 백성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하에 새로운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 “거스코저 홀진덴 몬저 사람을 모아야홀것이오 사람을 모으고저 홀진덴 지물이 잇سن 연후에야 홀것이라”¹⁵⁾는 우군측의 주장은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인재와 재물을 구하

11) 인천대학민족문화자료총서①, 『고소설전집』, 『홍경래실기』, 은하출판사, 1983, p.12.

12) 이우성, 임형택, 『이조한문단편집』 하, 『홍경래전』, 일조각, 1982, p.336.

13) 권혁래, 조선후기 역사소설의 성격, 박이정, 2000, p.180.

14) 인천대학민족문화자료총서①, 『고소설전집』, 『홍경래실기』, 은하출판사, 1983, p.14.

기 위한 이들의 움직임은 비록 거사가 실패로 끝났음에도 19세기이후 조선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홍경래가 지지 세력을 결집하던 방법으로 세 가지가 알려져 있다. 첫째, 민간에 전설처럼 전해지는 방법이다. 그들은 당시 널리 퍼져있던 ‘眞人’설이나 ‘神仙’사상을 활용하여 인재를 구하였다고 한다. ‘진인설’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비록 현대에는 낡고, 미신적이라 평가를 받을지라도 그 당시 민중들에서는 사실처럼 인식될 수 있었다. 이러한 까닭에 “일위 빅발로옹이 도관도복으로 손에 청려장을”¹⁶⁾잡은 우군측이 현몽하는 상황이 전설이나 소설로 형상화될 수 있었다. 그리고 소년 홍경래가 전국에 유명한 장사에게 힘을 과시하여 관병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지하였다는 전설이 생성될 수 있었다. 둘째는 “金帛을 난호외주며 도흔말로 달내어 다부하를 삼”¹⁷⁾었다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러한 형태가 구체화된 것이 “청복이 흉년을 당하야 빅성이 스쳐로 리산하느”¹⁸⁾ 상황에서 은점을 한다고 소문을 내고,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백성들에게 전후사연을 소개하면서 “미쥬성찬으로 후디하고 일변 은량을 분급하며 일변으로 병기를 난호주며 군복을 마련”¹⁹⁾하는 방법이다. 셋째는 백성을 살해하고 재물을 빼앗는 관병을 피해 정주성을 모여든 농민들을 흡수하여 세력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관군의 소개 작전으로 생활터전을 박탈당한 “박천과 가산 빅성 쓰르느자 | 남너로 쇼 합하야 수천여명이라”²⁰⁾하였으니 정주성에서 관군과 싸운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농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봉기군에 본격적으로 참여함으

15) 인천대학민족문화자료총서①, 『고소설전집』, 『홍경래실기』, 은하출판사, 1983, p.15.

16) 인천대학민족문화자료총서①, 『고소설전집』, 『홍경래실기』, 은하출판사, 1983, p.17.

17) 인천대학민족문화자료총서①, 『고소설전집』, 『홍경래실기』, 은하출판사, 1983, p.16.

18) 인천대학민족문화자료총서①, 『고소설전집』, 『홍경래실기』, 은하출판사, 1983, p.19.

19) 인천대학민족문화자료총서①, 『고소설전집』, 『홍경래실기』, 은하출판사, 1983, p.19.

20) 인천대학민족문화자료총서①, 『고소설전집』, 『홍경래실기』, 은하출판사, 1983, p.38.

로써 봉기군의 성격이 변화하였고 장기간 치열한 싸움이 가능하였다. 농민이 주축이었기 때문에 비록 이들이 관군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였지만, 19세기 조선사회에 미친 파급력이 상당하였다. 이들이 패배함으로써 개혁의 움직임은 실패로 끝나고 그와 더불어 그들이 제시한 이념도 사라졌다. 이로 인해 조선왕조가 유지되던 19세기의 일기, 가사 등에는 홍경래가 이념이 거세된 ‘반역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이 내세운 이념이 ‘초보단계의 유교적 민본주의’와 ‘신비주의’에 의존²¹⁾하였다고 하지만 당시 봉기군은 “강계짜 우모령으로서 불일간에 니를”²²⁾ 것을 믿을 정도로 당시의 도참설 등은 설득력을 발휘하였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조선사회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실록이나 관군이 기록한 일기에서 보이는 ‘불령한 醜類’²³⁾ 또는 ‘도적’의 성격은 벗어나 있었다. 그들의 봉기는 조선사회를 뒤흔들 정도로 파급력이 컸기 때문에 『한양가』에서도 “취일천과 홍경니은 역적기도 춤모르고 정회량과 전연모은 역적의도 간신이요 우근칙과 김즈점은 역적의도 흉노로다”²⁴⁾의 형태로 문면에 등장시킬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비록 신미민란을 주도한 홍경래와 우근칙이 역적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민중들의 인식 속에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역사주체가 소설로 형상화될 때 객관적 사실보다는 비범함이 강하게 드러나는 전설이나 신화적인 인물로 그려질 수 있었다. 홍경래의 측근 중에

21) 오수창, 『19세기 초 평안도 사회문제에 대한 지방민과 중앙관리의 인식과 정책』, 『한국문화』 36, 2003, p.151.

22) 인천대학민족문화자료총서①, 『고소설전집』, 『홍경래일기』, 은하출판사, 1983. p.138.

23) 『조선왕조실록』, 순조 12년 4월 21일조.

24) 정씨본 『한양가』. 표지에 己亥四月 漢陽歌로 기록되어 있어 『한양가』를 완성한 해가 1959년이며, 『한양가』를 필사한 시기는 『한양가』끝에 ‘임진연이월초오일 정부인덕’이라 하였으니 1952년임을 알 수 있다. 소개되지 않은 이본으로 禮泉郡 巖門面 省峴洞 福泉 冊主 丁婦人이라 기록하여 정부인본이라 하였다.

서 설화적 요소를 잘 드러내고 있는 인물로 ‘이제초’를 제시할 수 있다. 그는 실록과 『정주가』, 『신미록』에서 미련하고 힘만 있는 인물²⁵⁾로 그려지고, 『홍경래실기』에서는 분전하다 죽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이 인물이 소설화 과정을 거쳐 『홍경래전』에 이르면 ‘웃으며 스스로 턱 밑을 찌르게 하여 죽었다’는 신화적 인물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는 비극적으로 최후를 맞이한 ‘장사’에 대한 동정과 새로운 세계를 갈망하는 독자들의 열망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그들이 내세웠던 이념은 거세되거나 약화되어 버렸다.

문학에서 비극적 장사의 이미지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항우’이다. 항우에 대한 후대의 기록은 『史記·項羽本紀』를 바탕으로 한다. 『史記』에서 항우는 초나라 귀족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글쓰기를 잘하려 하지 않았으며 검술 또한 배우려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병법에는 관심이 있어 배우게 되었지만, 대충의 뜻만을 이해하고는 열심히 배우려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史家도 항우가 천부적 재능만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질서의 수용에는 관심이 적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은 그가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될 것임을 알려준다. 이로 인해 그의 행적은 문학작품에서도 ‘슬픔’, ‘이별’ 등의 지극히 개인적인 감성과 연결된다.

후대의 작가들에게 ‘항우’는 당시 이념의 토대인 유학적 세계질서를 거세한 ‘無道’한 인물로 제시되고 있다. 그는 결국 力拔山の 힘만 지닌 포악한 ‘力士’²⁶⁾였던 것이다. 반면에 그의 적이었던 한고조는 『초한전』(1915

25) 실록과 『신미록』에서는 “힘센 자로서 실로 쉽사리 포박할 수 없었으나, 김계목이 먼저 창으로 찌르고 전재명이 뒤따라 힘을 합하여 돕고, 거짓말로 꼬여 마침내 사로잡을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26) 시조에서 항우는 ‘공변된 天下業을 힘으로 어들 것가’(359), ‘녁발산 괴기서는 전무 후무 항우’(871), ‘拔山力 蓋世氣는 楚霸王의 버금이오’(1641, 5350), ‘항우는 천하장사 | 로터’(2171), ‘턴하 장스 항우’(2540), ‘力拔山 氣蓋世’(2770), ‘力拔山도 썰터 업고

년) 등의 소설에서도 점점자라 나면서 마음이 인후하고 의사가 활달하여 큰 도량이 있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유학적 덕목을 갖춘 유방과 이념을 거세당한 항우를 대비함으로써 항우의 패배가 당연함을 강조하고 있다. 비록 『사기』와 달리 『초한전』에서는 큰 뜻을 품고 가르침 받은 내용을 통달한 인물로 제시되고 있지만, 이러한 차이가 그의 비극적 운명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였다.

항우의 다양한 면모를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시조에서도 항우는 ‘무도’ 함만을 지닌 장사로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시적화자들은 한고조 유방이 滎陽에서 열거한 항우의 죄목²⁷⁾ 중에서 ‘義帝를 죽인 일’을 가장 중대한 죄목이라고 말하고 있다.

- ① 공변된 天下業을 힘으로 어들 것가
秦宮室 불지름도 오히려 無道커든
흐믓며 義帝를 죽이고 하늘 罪를 免흐랴.
- ② 어우화 楚霸王이야 애늬고도 애도래라
力拔山 氣蓋世로 仁義를 行흐여 義帝를 아니 주기던들
天下에 沛公이 열이 이셔도 束手無策 홀넛다

氣蓋世도 할 일 업다’(3123), ‘흐믓며 西楚霸王의 힘으로도 能히 못 막았느니’(3834), ‘항우 죽흔 천하장사라마는’(4552), ‘力拔山 楚霸王은’(4764), ‘項羽의 拔山力’(5178)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안의 번호는 박을수, 『한국시조대사전』, 아세아문화사, 1992 참고.

27) 1) 왕과의 약속을 어기고 나를 漢中으로 보낸 일, 2) 卿子冠軍을 죽인 일, 3) 마음대로 趙始皇의 나라의 關中에 들어온 일, 4) 秦宮을 불지르고 묘를 파헤쳐 재물을 훔친 일, 5) 항복한 秦王子嬰을 죽인 일, 6) 진의 降卒을 속여서 坑에서 죽인 일, 7) 故主를 쫓아내고 여러 장수들을 왕좌에 봉한 일, 8) 義帝를 내어 쫓고 彭城에 도읍하여 韓·梁의 땅을 빼앗은 일, 9) 사람을 숨겨서 江南에서 義帝를 죽인 일, 10) 불평한 정사, 백성에게 신용을 지키지 않고 大逆無道하여 천하에서 용납하지 않은 일 등. ‘의제’의 죽음과 관련된다.

義帝²⁸⁾는 懷王之約을 발표한 反秦세력의 황제였지만 항우에게 살해당하는 인물이다. 항우가 자신이 섬기던 의제를 살해하면서 ‘無道’한 존재로 낙인찍히게 된다. 아방궁을 불태우고, 수많은 백성들을 죽인 것보다 왕을 죽인 사건이 더 크게 부각된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그와 대립하던 한고조 유방은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고 초패왕이 한고조에게 束手無策으로 당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런데 시적화자는 이 사건이 단순한 명분 상실만이 아니라 ‘하늘 罪’를 범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서술자는 ‘天下業’을 달성하기 위해서 ‘힘’만 아니라 ‘명분(유학적 질서)’을 지켰어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초패왕이 의제를 죽인 易姓革命으로 인해 그가 지니고 있던 이념은 거세되고, 단순히 無道한 일반 일삼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시조 등 다양한 장르에서 항우를 소재로 선택하였지만 그가 펼치고자 했던 이념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의 존재의미가 이미 고정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항우가 나라를 건국하고, 경영하였다는 점에서 그가 힘만 지니고 있는 인물일리 없다. 그럼에도 역사의 패배자였기에 그의 이념은 거세되고 힘만 남은 어리석은 인물로 문학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홍경래와 항우는 ‘몰락양반 또는 평민’과 ‘귀족’이라는 태생적인 차이에 의해 그들의 성장과정과 봉기의 이념은 다르게 나타난다. 홍경래는 백성구제를 위해 현실적 부조리를 개혁하려는 의지를 드러내었다. 이를 위하여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²⁹⁾ 그가 대결하는 현실과의 싸움은 힘겨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의

28) 춘추전국시대 초 회왕의 후손으로 목동으로 살아가던 그를 項梁과 송의 등이 楚懷王으로 옹립하였다. 항량이 전사하자 宋義와 劉邦을 등용했고, 항량의 뒤를 이은 項羽를 견제하면서, 먼저 관중에 들어가는 자가 관중왕이 되라고 명한 懷王之約을 발표하였다. 기원전 207년 유방이 咸陽에 제일 먼저 도착하고 秦王 子嬰을 항복시켰다. 그 후에 항우가 대군을 이끌고 함양에 들어오자 회왕은 유방을 관중왕으로 삼으로 했지만, 항우는 이것을 무시하고 유방을 서쪽으로 분봉시키고, 西楚霸王이 되었다.

29) 권혁래, 조선후기 역사소설의 성격, 박이정, 2000, p.190.

이러한 의지는 문학에서나마 재생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에 향우는 ‘귀족’으로서의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바탕으로 平天下의 의지를 드러내었고, 이것이 무너졌을 때 문학적 재생은 힘들어졌다. 이런 이유로 홍경래와 향우는 비극을 내재한 영웅이었지만, 이념이 거세된 향우는 사대부 작가에서부터 가객, 무명씨에 이르기까지 많은 작가들에게 힘만 남은 장사로 인식되고 선택되었다. 반면에, 홍경래는 이념의 변화와 맞물려 민중들이 관심을 보였을 전설이나 그들이 주로 향유하던 소설 등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문학적 형상화 과정을 거치면서 향우는 ‘비극성’이 강조된 반면에, 홍경래는 미래를 기약하는 인물로 상징화되면서 ‘비극성’은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역할전도와 영웅화과정

홍경래와 향우는 사회적 변혁이 가속화되는 18세기 이후에도 시조, 가사, 소설, 연희 등 다양한 장르에서 재창조되고 인구에膾炙되었다. 이처럼 향유층이 확대된 것은 이들에 대한 관심이 “한 작가에 의한 일회적 진술이 아니라, 문화담당층의 집단 의식이 표출”³⁰⁾되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독자층(관객층)과 출판 및 유통에 관여한 사람들의 인식이 상호작용하면서 ‘전설화’되어가는 과정을 밟기도 했다. 이처럼 ‘패배자’나 ‘반체제인물’로 낙인찍힌 인물들이 새로이 조명 받고, 다양한 장르에서 형상화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이들의 삶이 독자와 관객들에게 비장미, 鑑戒,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 등을 제시해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민중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20세기 이전에는 ‘홍경래’에게서 영웅성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들의 도전이 실패하였기에 기록자들은 성리

30) 권혁래, *조선후기 역사소설의 성격*, 박이정, 2000, p.136.

학적 가치관을 기준으로 홍경래와 그가 주도한 신미민란을 재단하고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성리학적 이념이 강하게 남아있는 19세기 초에는 홍경래가 제도권에 항거한 인물로 범상한 존재보다도 못하게 그려지게 되었다. 왕조가 붕괴하고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아가면서 홍경래는 민중의 영웅으로 문학에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항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항우의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에 항우가 일으킨 사건의 당위성과 이념은 거세된 상태에서 ‘힘’, ‘無道’, ‘잔인’ 등의 소재를 차용하거나 ‘홍문연’ 등의 일화를 차용하는 형태로 형상화되었다. 그러므로 문학 속에 등장하는 홍경래와 항우는 사실보다는 ‘사실처럼 보이는’ 또는 ‘사실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내용만을 모티프³¹⁾화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홍경래는 『신미록』에서 그 추종세력과 더불어 天意에 도전하고 충의를 저버리며 부귀와 출세, 이익만을 도모하는 체제 위협세력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기록자가 성리학적인 측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서술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념성이 반영되어 홍경래와 우군측의 위상은 顛倒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주가』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죽여주소 죽여주소 홍경너를 죽여주소 홍경너들 제탓시라 니 의저의 탓시로다 니의전들 무엇알고 우군측의 죄옴이라”이라는 서술은 주장인 홍경래보다 재정을 담당한 이희저가, 이희저보다는 謀士인 우군측이 신미민란에서 주축이 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서술을 통해 19세기 조선을 변혁하고자 했던 홍경래의 이념은 약화되고, 사건에 참여한

31) 문학이론에서 ‘모티프’란 “주제를 구축하고 통일감을 주는 중요단위”로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동일한 혹은 유사한 낱말이나 문구, 내용”이라는 의미를 가진다.(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1976, p.69) 이러한 모티프는 신화나 전설 등에서의 영웅으로 구체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의 영웅은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각종 장애물을 극복하고 목표에 도달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재정 담당자와 모사꾼이 중시되었다. 이는 봉기를 주도한 홍경래가 우군측의 꺾임에 넘어가는 보잘 것 없는 인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顛倒현상은 전대의 이념이 약화된 『홍경래실기』에서도 나타난다. 송림전투에서 패배하여 정주성으로 추격당하는 상황에서 홍경래가 우군측에게 “만일 이곳의 잇다가는 사로잡힌 비 될가 호느이다.”라는 조급함을 드러내는 행태가 그것이다. 이때 우군측이 “원슈는 엇지 용병을 모르시느니잇가 관병이 비록 급히 쓰르나 효성령에 니르러 우리의 북병이 잇슬가의심호야 감히 쓰르지 못호리라”³²⁾는 말로 홍경래를 안심시키고 있다. 보조인물인 우군측이 주동인물인 홍경래를 위로하는 행동을 통해서 홍경래는 지략 없는 장수로, 우군측은 뛰어난 모사로 형상화된 것이다. 홍경래와 우군측의 역할이 전도된 것처럼 보이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극한 상황에 놓인 홍경래가 맞부딪친 현실적인 두려움을 여과 없이 읽어낼 수 있다. 왕조의 붕괴와 함께 기존 사회이념이었던 성리학적 가치관이 도전을 받지 않았다면, 이 장면 역시 역사의 한 장면에 머물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역사주체의 이념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홍경래의 봉기가 문학 담당층에게 주목을 받았고, 홍경래와 우군측의 역할전도가 재정립되면서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영웅으로서의 홍경래를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민중의식이 강화되면서 비록 소설에서나마 홍경래를 불멸의 존재로 좌정하게 한 것이다.

항우도 ‘후세에 대한 권계’나 ‘교훈’의 대상으로, 조선의 이데올로기인 성리학적 유교이념을 강화하거나, 자신의 슬픔을 투영하여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소재로 문학에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 인물의 비극성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도 役割顛倒에 의해서이다. 항우와 범종의 전도된 역할관계는 홍경래와 우군측에게서 보이는 양상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때 顛倒된 관계는 항우의 현실적 한계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도양상을 구

32) 최진원·장덕순 교수, 『한국고전문학대계』 I, 『신미록』, 교문사, 1984, p.448.

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은 ‘홍문연’이다. ‘홍문연’에서 항우는 범상한 인물로 군사인 범증의 계책을 망치고 천재일우의 기회를 상실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³³⁾

누구서 范亞父를 智慧 잇다 닐으든고

沛上에 天子氣를 分明이 알아건을 鴻門宴 高開時에 風雲이 擁護호야 白日이 震盪호야 天意를 바히 몰라 玉玦을 세 番 들고 項莊의 拔劍起舞 그 더욱 可笑로다

암은만 玉斗를 짓치고 疽發背호도록 뉘웃친들 어이리.

시적화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范亞父의 지혜’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반대의 根底에는 仁과 義에 의해 국가가 통치되어야 한다는 天命論이 있다. 그가 보기에 范亞父가 모셨던 항우는 힘은 있으나 인의가 부족한 인물이며, 이로 인해서 천자의 기운도 없는 인물이다. 천의가 없는 凡常한 항우이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천명을 거스르려고 했던 范亞父에 대해 ‘지혜롭지 못한 인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홍문연을 배경으로 天意를 모르고 계책을 꾸민 范亞父를 비웃고, 결국에는 후회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이러한 비난은 范亞父의 계책보다는 항우의 어리석음에 기인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언술에는 항우와 범증의 전도된 관계가 놓여

33) 홍문연은 조선후기에 이르러 연회로도 재구성되었다. 이것은 당시에 홍문연의 일화가 많은 이들에게 관심과 흥미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 연회에서 범증과 대비되는 항우의 모습을 통해 항우의 영웅적 품모 이면에 보통 사람들과 상통하는 인간적 결결과 인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부족한 점 때문에 훨씬 매력적(이형대, 楚漢古事 소재 시조의 창작 동인과 시적인식, 『한국시가연구』 3집, p.387)으로 다가온다. 비록 홍문연을 극화한 ‘항장무’에서 ‘번쾌’가 중요인물로 등장하고, 당시의 급박한 정황과 번쾌의 기백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지만, 번쾌로 인해 발생하는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요소가 항우의 인간적인 면모이다. 이렇게 볼 때, 항우는 역사의 승리자가 되지는 못하였지만, ‘인간미’는 획득하였다고 하겠다.

있다. 시적화자가 비록 홍문연을 배경으로 천의를 모르는 범증을 비난하고 있지만 항우의 돌발행동이 없었다면 범증의 행동은 평천하의 의지와 지혜로움으로 포장되었을 것이다. 항우의 패배로 인해 이때의 일화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고, 범증의 지혜로움은 무가치하게 되었다.

역사주체의 이념이 변화하면서 홍경래와 우군측의 전도된 관계는 재정립되었지만, 항우와 범증의 관계는 재정립되지 못하고 항우는 ‘어리석음’과 ‘장사’의 이미지로 다양한 작품에서 형상화되었다.

4. 죽음과 문학적 재생

홍경래와 항우는 패배자로 ‘정주성’과 ‘烏江’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때의 죽음은 실제적 죽음이며, 생물학적 죽음이다. 그러나 이들의 죽음이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죽음 이후에도 그들의 삶과 죽음이 문학의 소재가 되어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이때 죽음의 표현양상은 서술자와 시대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죽음’이라는 동일한 현상을 문학으로 형상화할 때 기록자의 서술태도에 따라 방향성을 달리하는 것이다. 홍경래와 항우의 ‘죽음’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발견된다. 물리적으로 볼 때 ‘죽음’은 동일한 현상이지만, 문학으로 형상화되는 과정에 홍경래는 민중의 대변자로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투영된 반면에, 항우는 권력과 힘의 상징으로 인식되면서 비극적 ‘죽음’이 강조되었다.

『신미록』에 제시된 홍경래의 죽음은 비장함과 거리가 멀다.

경래 형세 위급하여 도망코자 하더니 왕재혁이 갈 길을 막고 한 창으로 경래를 찌르니 경래 말에서 떨어지거늘 왕재혁이 그 머리를 베어³⁴⁾

34) 장덕순·최진원 교주, 『한국고전문학대계』 I, 『신미록』, 교문사, 1984, pp.485-487.

영웅의 패배와 죽음은 독자인 민중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패배와 죽음으로 대치되며, 이것은 희망을 잃어버림, 곧 좌절이 된다. 그러나 단순한 패배와 죽음이 아니라 '도망'가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 인물은 보통이하의 인물로 전락하며, 영웅성의 상실과 더불어 영웅의 죽음이 전해주는 비장미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기록자의 서술태도가 인물의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관의 시각에서 기록한 『신미록』에 '도망'치다 죽는 홍경래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홍경래는 문학 담당층의 변화에 따라 변이를 거치게 되고, 결국에는 '불멸의 영웅'이 된다. 이러한 양상은 다른 인물에게서도 발견된다. 이제초가 전투를 벌이다 衆寡不敵으로 잡혀 죽는 장면에서도 현실성은 읽을 수 있지만, 비장미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까닭에 민중의 영웅으로 성장한 이제초는 결국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초의 죽음은 아기장수설화에서 아기장수가 맞이한 죽음의 이미지와 결합하여 『홍경래전』를 읽는 독자들에게 비장미를 전해주고,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봉기를 주도한 홍경래도 전설과 소설로 형상화하면서 “홍경래는 서장디에 잇고 우군측은 북장디에 잇더니 다 도망호야 잡지못호35) 였다는 서술이 가능해졌다. 영웅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서술자의 의지가 '불멸의 영웅'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현실을 전설로 대치함으로써 착취당하여 절망감에 빠져있는 독자들에게 언젠가는 현실의 모순을 청산할 영웅이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준다. 이러한 표현은 영웅의 죽음이 전해주는 비장감을 제거하여 문학의 효용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지만 서술자는 소설이 주는 감동보다는 독자들의 희망을 더욱 중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말을 생성한 것이다. 이러한 서술이 가능했던 것은 조선의 신분질서를 유지시켰던 성리학적 이념이 약화되고 새로운 근대적

35) 인천대학민족문화자료총서①, 『고소설전집』, 『홍경래실기』, 은하출판사, 1983, p.156.

이념이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민중의식의 변화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 홍경래의 불멸성이라 할 수 있다.

정주성을 함락하고 귀환하는 이들에 대해서 “구경호는 빅성이 인산인해를 일우워 칙칙칭선호며”³⁶⁾라고 하였다. 관군이 한양으로 개선하는 장면에서 보이는 서술자의 태도는 질서의 유지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서술자는 관군이 홍경래군을 진압한 일을 ‘천의’로 파악하고 있다. 결국 서술자의 이념적 가치는 ‘충절’에 있으며 기존질서의 유지 또는 현상회복이 최선의 가치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관군과 의병장 ‘허항과 김견신’ 등이 민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잔인함’은 감추어지고, “가산 박천영류의 무죄한 빅성이 만커늘 진위를 못지 아니코 디양 살육이 만흠으로 비변스에서 신칙³⁷⁾”하는 비극성도 약화되거나 감춰졌다. 그들의 ‘충의’만이 부각되면서, 사회를 변혁하기 흘린 많은 희생과 저항정신이 무가치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서 서술자가 보여준 인식의 한계는 19세기의 급변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조선왕조가 나아갈 방향을 상실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준다.

반면에 항우는 절망적 상황에서 자살함으로써 발생한 비극적 운명은 문학작품 속에서 시적화자의 슬픔과 결합하여 새로운 생명력을 지니게 되었다.

轅門에 月黑호니 愁雲이 寂寞호다

可憐타 楚霸王이 天下을 일탄 말가 力拔山도 썰디 없고 氣蓋世도 할일
업다 칼을 잡고 나니 四面이 楚歌로다 虞兮虞兮 奈若何오 三步에 躊躇호고
五步에 落淚호니 三軍이 훗터지고 니 마암도 散亂호다 天下에 願호기를 金
鼓을 울니면서 江東을 가자더니

不意에 敗亡호고 무신 面目으로 父母을 뵈오며 江東 父老을 어이 할가.

36) 인천대학민족문화자료총서①, 『고소설전집』, 『홍경래실기』, 은하출판사, 1983, p.157.

37) 인천대학민족문화자료총서①, 『고소설전집』, 『홍경래실기』, 은하출판사, 1983, p.71.

시적화자는 항우가 포위된 '垓下'와 '밤'을 배경으로 楚霸王의 패배를 슬퍼하는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달조차 검은 밤과 愁雲은 절망적인 상황을 조성하며, 그 속에는 寂寞, 躊躇, 落淚만 존재한다. 力拔山과 氣蓋世의 영웅성은 敗亡하고 '면목 없음'으로 대체되고 있다. 시적화자는 항우의 절망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 항우와의 交感을 시도하지만 이러한 절망감은 심란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항우의 영웅성이 거세되어 凡夫와도 같아지면서, 초패왕의 자결이 전해주는 비장미가 사라지고 후회하는 평범한 사내의 심정만 남게 되었다. 결국 항우는 시적화자의 슬픔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항우의 존재를 단순히 역사속의 인물로 머물게 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을 지닌 인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교감은 역사의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한 영웅이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실패한 영웅이 주는 비장미는 현실 속의 시적자아가 지닌 절대적 적막감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인식은 항우가 烏江 앞에서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모습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① 項羽야 말 무려보자 自刎而死 무슴일가
江東弟子 또 잇거늘 再起兵을 못흐고서
엇지타 烏江을 아니 건너 千古 貽恨
- ② 無道 흐기로써 陰陵에 길을 일고
드디여 갈 짜 업써 하늘 보기 붓그려
烏江을 건너지 아녀 어이 슬허 흐느니

烏江을 앞두고 죽음을 결정하는 순간을 포착하여 '貽恨'과 '슬픔'을 말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인식은 상반된다. 항우의 죽음을 결정하는 모습은 유방의 행적과 대비되면서 그를 영웅으로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안정된 기반과 능력을 바탕으로 천하를 도모하지만,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자살을 결정하는 모습은 인간적이다. 영웅이었지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 결과, 그의 죽음이 주는 비장미는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비장함을 통해서 항우는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비극적 영웅으로 좌정하게 된다. 항우의 자결은 비록 훗날을 기약하지 못했다는 비난에는 직면할지라도 영웅으로서의 존재감을 전해주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영웅의 죽음은 범인의 죽음과는 다른 것이고, 이로 인해서 그들이 비록 다른 모습으로 형상화될지라도 작품 속에서 오랫동안 재생될 수 있는 것이다.

5. 결론

홍경래는 세상에 대한 열망으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지만, 이런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그의 도전은 그가 살았던 시대와 평안도에서 한양에 이르는 공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조선시대에도 많은 반정과 정란, 민란이 일어났지만, 성공한 민란은 없었다. 왕권과 신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 발생한 반정과 정란만이 일부의 지지를 얻어 성공한 것은 그만큼 조선사회가 성리학을 바탕으로 하는 이념이 확고했음을 의미한다. 신미민란도 아래로부터의 혁명이었고, 성리학적 세계질서에 대한 도전이었기에 결국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민란을 주도했던 홍경래는 민중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전설에서 문학에서 형상화될 수 있었다.

신미민란이 진압된 19세기의 기록에 등장하는 홍경래는 그의 봉기이념이 거세된 상태에서 ‘역사’의 이미지만 제시되었다. 그러나 조선왕조가 붕괴되면서 성리학적 이념이 약화되고 민중들의 의식이 강화되어 가는 변혁의 시기에 홍경래는 문학에서나마 ‘민중의 영웅’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었다. 홍경래처럼 ‘실패한 영웅’을 대변하는 항우도 다양한 장르에서 소재나

전기형태로 형상화되었다. 그렇지만 항우는 이념이 거세된 '力士'의 이미지로 고정되었기에 대부분 '슬픔', '이별', '죽음' 등의 부정적인 감성과 결합되고 있다. 홍경래와 항우가 문학을 통해 형상화되는 과정에 비극적 영웅으로 좌정하였고, 비극성으로 인해 '숭고'함보다는 '비장'함이 부각되었다. 본고에서는 홍경래와 항우의 이러한 문학적 형상화 양상을 '장사와 이념의 거세', '역할전도와 영웅화과정', '실존적 죽음과 문학적 재생'의 3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조선왕조실록』

박을수, 『한국시조대사전』, 아세아문화사, 1992.

이우성, 임형택, 『이조한문단편집』 하, 『홍경래전』, 일조각, 1982.

인천대학민족문화자료총서①, 『고소설전집』, 『홍경래실기』, 은하출판사, 1983.

장덕순·최진원 교주, 『한국고전문학대계』 I, 『신미록』, 교문사, 1984.

단행본

권혁래, 『조선후기 역사소설의 성격』, 박이정, 2000, 136쪽.

논문

김용찬, 『조선후기 시조에 나타난 소설수용의 양상』, 『어문논집』 32집, 고려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993, pp.285-316.

김학성, 『시조의 시학적 기반에 관한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6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1, pp.417-418.

김현양, 『1910년대 활자본 고소설의 존재양상과 그 특성』, 『애산학보』 28집, 애산학회, 2003, pp.157-180.

박노준, 『김수장 시조의 장르 혼효현상과 유략적 취향』, 『한국학연구』 5집, 고대 한국학연구소, 1993. pp.39-114.

오수창, 『19세기 초 평안도 사회문제에 대한 지방민과 중앙관리의 인식과 정책』, 『한국문화』 36, 2003, p.151.

이형대, 『楚漢古事 소재 시조의 창작 동인과 시적인식』, 『한국시가연구』 3집, 한국시가학회, 1998, pp.384-386.

Abstract

Comparative Study on Literary Configuration of 'Hong Kyung Rae' and 'Hang Woo'

Jeong, Young-Mun

After the 18th century, literary configuration of historical facts or characters appeared actively. The reason was because Joseon society was under revolution because of social disruption such as riots and party strife. It was also because the general people, who appeared as new subjects of history in the course of overcoming chaos where the existing social order was collapsed and new order couldn't take place, presented new heroes as methods of representing their opinions. Characters being presented as heroes or historical facts or relevant old history were winners in history dominated by the logic of power or people who were held in high esteem in future generation. But characters who exercised strong power during their life time in the course of conversion to new social structure but failed after all also started to become objects of literary configuration. As the character who can represent these changes, there is 'Hong Kyung Rae'.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intends to compare the literary configuration course of 'Hong Kyung Rae' comparatively with 'Hang Woo'.

Hong Kyung Rae tried to overcome realistic limits as aspiration of the world and because such attempt was antiestablishment, it couldn't but end in failure. But his challenge gave much influence on the days when he lived and to places from Pyungando to Hanyang. Riot in the year of Shinmi also failed because it revealed the attempt of disrupting Confucian world order and only its leader Hong Kyung Rae could be configured in literature. At that time, Hong Kyung Rae appeared with only the image of 'man of great strength' without Confucian value. It was also the same in case of Hang Woo. As Hang Woo and Hong Kyung Rae remained as the image of 'men of great

strength', they were composed as sources of various genres or biographical styles. But most of them were combined with negative emotion of 'sadness', 'separation', 'death' and etc.

During such courses, rather than 'sublimity' of a hero, 'resoluteness' was more emphasized. Unlikely as Hang Woo whose image was fixed, Hong Kyung Rae became to take place as 'hero of the people' after modern times when Confucian order was disrupted.

Key Word : Hong Kyung Rae(洪景來), Riot in the year of Shinmi(辛未民亂)
man of great strength(壯士), Hang Woo(項羽) resoluteness(悲壯美)

정영문

송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겸임교수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조원동 570-13호

전화번호 : 010-6799-4670

전자우편 : dull-baram@hanmail.net

이 논문은 2012년 3월 15일 투고되어
2012년 4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2년 4월 20일 게재 확정됨.